六禮 문답

여섯가지 생활 예절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는대로 대답해 드립니다.

제사를 옮겨갈 때는 어떻게 하는가

問 조부모의 제사를 큰댁 사촌이 기독교식으로 모셔오다가 백모가 돌아가시고 나니 지내지 않습니다. 이에 둘쨋집의 장남인 제가 조부모의 제사를 모셔오려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窮問子

答 기독교식 추도예배에서는 부모의 제사를 장남만이 모시는지, 또는 조부모와 그 윗대 4대봉사조까지의 추도예배를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또 불교의 제례에서도 부모의 기일재를 올리는 것은 보았어도 조부모와 4대봉사조의 기신제를 어떻게 행했다는 데에 대해 과문해서, 유교식 전통제례에 한해서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방안제사라고 말하는 기신제忌辰祭는 부조가 돌아간 날에 그 첫 시각을 깨끗한 때로 삼아 자정子正 또는 축시초丑時初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맏아들이 봉사자奉祀者가 되어 지내고 이를 종자宗子라고 해서 조부와 증조、고조부모까지 4대를 지냅니다. 5대가 되면 친진親盡이 되어 세사歲事라고 하는 묘사墓祀를 지내되 기신제나 차례는 지내지 않습니다. 4대의 친진이 되고도 신주神主를 묘전에 묻는 매안埋安을 아니하고 가묘家廟가 아닌 별묘別廟를 세워 영구히 기신제를 지내는 것을 불천지위不遷之位라 하고, 이러한 신주를 모신 별묘를 체천하지 않는 사당이라고 해서 부조묘不廟라 하는데, 이러러면 옛적에 공신 등에게 나라에서 내리는 부조지전不 之典의 은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천위도 그 사당신주를 종자 또는 종손이 모시고 이 종자나 종손에 이상이 생겨 이를 제자諸子, 즉 지차손支次孫이 모셔 가려면 그 사당에 고유告由를 하고 이를 옮겨 모시는 이안移安을 하는 절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묘, 즉 집안사당이 없어진 지 오래이고 신주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이런 절목도 없어져 복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천위 사당도 옛적처럼 종손을 따라 옮겨 다니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니 봉사손이 바뀌면 개주改主, 신주를 고쳐 쓰는 절차만 행하면 됩니다.

제사를 옮겨오는 일로 말이 장황해졌는데, 지금 사당이 없으니 조부모의 제사를 큰댁에서 모셔오려면 산소에 가서 고유를 해야겠습니다. 고유는 어떤 일의 사유를 아뢰는 것입니다. 주과포酒果脯의 간단한 전물奠物을 마련해 가지고 가 베풀고 분향焚香과 강신례降神禮를 한 다음에 술을 따라 올리는 작헌酌獻은 한 번만 하는 일헌지례一獻之禮로 하여 독고유讀告由를 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독고유는 고유문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고유문의 앞머리는 날짜와 누가 누구에게 아뢰는 것 등의 문투가 일반 제문과 공통이고 본문에 가서 사유를 진술합니다. 가령 궁문자가 그 조부 묘소에 가서 고유할 경우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략) 복이伏以 종자유고宗子有故 향화불근香火不謹 예불궐향禮不厥享 중방승사仲房承祀 근이주과謹以酒果 용신건고用伸虔告 : 엎드려 아뢰건대 종자가 유고하여 향화를 삼가서 받들지 못하는데 예로써 궐향을 할 수가 없는지라 다음 자손 집으로 제사를 받들어 잇고자 하여 삼가 술과 실과로써 펼쳐 공경히 아뢰나이다.

이렇게 고유문을 지어 봉독하기가 어려우면 그같은 요지를 한글로 풀어서 읽어 아뢰어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부모님의 영혼이 그 아뢰는 내용을 가납하기를 거부하고 돌아앉으실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한글로 풀어 아뢰도록 짓는 것조차도 마련이 없거나 주변이 안된다면 그냥 묘소에 올라가 잔을 올리고 묵념만 하고 내려와도 조부모님은 그렇게 하는 손자의 갸륵한 마음과 정성을 운감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신리神理는 물과 같아서 스며들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혼은 시공時空을 초월하므로 무소부지無所不至라 합니다. 궁문자가 조부모의 묘소에 먼저 다녀올 겨를도 마련도 없다면 그냥 집에서 제사부터 모신다고 해서 안될 것도 없습니다. 조부모님이 이를 몰라서 밝게 이르지 않으실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는 갖출 수 있으면 갖추되 모르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도 드리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기禮記의 첫머리에 예출어정禮出於情이라 했습니다. 예라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소리이니, 예보다 마음이 먼저인 것을 이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 弼雲齋

8면에서 계속

일의 추진이 본인이나 권영한 이단추진위원장이나 각자의 명예와 욕심을 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이에 그렇다면 그 진의가 무엇이냐는 좌중의 항의성 의견 개진과 질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비켜가는 의도였고, 마지막으로 권영한 추진위원장이 등단하여 ‘ 이미 설계가 완료되고 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석물공사의 발주계약도 완료되어 일이 많이 진척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를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취지의 선언성 발언을 하였다. 이에 좌중은 아연해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날의 회의에서 권정달 회장은 청도의 권릉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할 것을 확약했다.

■권릉학술조사위원회 개최

7월 30일 합동연석회의에서의 합의사항에 따라 8월 14일 11시 서울 종로구 원서동 소재 ‘ 북촌면옥 에서 가칭 ‘ 권릉발굴조사위원회權陵發掘調査委員會 의 회의가 열렸다. 이는 7월 30일의 대림정 모임에서 낭중공유적수호비대위측의 단소 이전 반대 건의문 내용중에 있는 청도 권릉의 학술조사 건을 권정달 대종회장이 수용하여 그 조사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이루어진 모임이었다.

조사위원은 대종회측에서 권계동權啓東 대종회 부회장, 권영하權寧夏 대종회 부회장, 권오선權五宣 중앙종친회 상임부회장, 권길상權吉相 부산종친회장, 권대성權大成 불교박물관장 등 5인이 선임되고 기로회 비대위측에서는 권병홍權炳洪 기로회장, 권오흥權五興 성균관전례교육원장, 권홍섭權洪燮 유교학술원초빙교수, 권택진權宅鎭 전 성균관대 교수, 권영성權寧星 전 영천종친회장 등 5인이 선임되어 모두 10인이 되었다. 이 가운데 권병홍 기로회장과 권영성씨가 가사로 불참하여 8인이 회합하였다.

회의는 권정달 대종회장을 대신하여 권경석權景晳 사무처장이 진행하면서 권정달 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였는데 그 내용은 ‘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 산8번지에 있는 권릉은 300여년 전부터 탐사를 한 바 있으나,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여건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다행히 영천의 권영성 회장이 산주 최씨 문중과 1차 협의한 바가 있고 10월 중에 다시 협의하여 순조롭게 조사가 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는다. 이번 발굴조사 노력으로 아시조님의 근거를 찾게 된다면 우리 권문에 더없는 경사가 될 것이며 그 업적이 길이 남을 것이다. 이번 발굴조사 사업에 이단추진위에서 그 비용지출에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차제에 선대에서 밝히지 못한 것을 찾게 된다면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해에 따라 이단헌성금 중 일부를 할애키로 하였으니 조사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발굴 진입로 개설과 개장 문제 등과 관련하여 청도군 당국과 협조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 는 요지였다. 본안건 토의에서는 조사위원회의 명칭을 발굴조사라는 직접 표현을 지양하여 ‘ 낭중공휘인행묘소탐사위원회郎中公諱仁幸墓所探査委員會 로 정하고 그 위원장은 영천 현지에 거주하는 권영성權寧星씨로 하고 부위원장에 권홍섭、권계동씨 2인을 선임하여 회장단을 구성케 했다. 본격적인 조사는 권릉이 소재한 산이 정상리에 세거하는 월성최씨月城崔氏 문중 소유이므로 평소 최씨문중과 친면이 있는 권영성 회장이 주선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리하여 권영성 회장이 최씨문중의 10월 15일 세사모임에서 이를 동의케 하여 찬성을 얻으면, 청도군청과 운문면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실행 기일을 잡기로 하였다.

<사진 · 글 權在琮>

▲ 권릉학술조사위원회의 모임이 열리고 있다.

7면에서 계속

게 비쳐 천지가 맑게 하네. 어영차, 들보를 크게 아래로 들어올림이여, 고랑과 계곡에 빛그림자 더하여 명멸하고, 음복자리에 차례로 모인 후예가 많이 자리하여, 아름다운 복을 흘려 드리우며 좋은 풍속 계도하리.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에 오르고 내리심은 옛날과 같이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은 더욱 깨끗해지며 존령께서는 곁에 계신 것과 같이 밝게 이르사 아름다움을 열어주소서. 후손은 발꿈치를 이어 찾아 이르고, 지나는 자는 우러러보며, 비록 세월이 서로 갈마들어 흐르더라도, 큰 바탕과 같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늘과 더불어 길이 밝으며, 끝이 없이 훼손됨이 없을지라.

태세 2009년 기축 늦은 여름달 18대손 오훈 삼가 지음

종후예 상목 삼가 씀

15대손 중업 삼가 새김

<사진 權奇允 · 글 權五焄>

화산부원군 추향 및 신도비제막 안내

경기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현암에 계신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시조후 17世 復) 묘소의 가을 세향 및 신도비 제막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오니 본방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2009년 10월 18일(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집결지 :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임진강 전진교 남단에 9시 30분까지 집결
지참물 : 주민등록증
연락처 : 회장 권진택 016-310-4609총무 권정안 011-766-9439

안동권씨화산부원군종회장 權 晋 澤